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2호 【루게 제24765호】 주제 103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
음하여 12월
17일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
민들, 세계 진보
적인류의 다합
없는 추모의
마음을 안으
시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 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
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공군, 로농적
위군명에위병대
가 정렬해있
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의 립상을 우러
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군, 로농적위군
명에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
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영남동지,
최룡해동지,
박봉주동지,
황병서동지, 김
기남동지, 최태
복동지, 현영철
동지, 리영길
동지, 박도춘
동지, 양형섭
동지, 강석주
동지, 김원홍
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광범기
동지, 오수용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
동지, 조연준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
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도당책임비서

들,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들,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
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함께 참가

하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한없는 추모의 정이 차넘치는 주제

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찍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흔,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돌아 보았다.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부터 백두산의 눈보라를 맞으며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생토록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민족반대의 변명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토대를 마련해 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우주과학기술과 핵기술, CNC기술을 비롯한 우리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반제반미 대결전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인민의 생명인 주체의 사회주의와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시였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록하신 특출한 민족사적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타고르는 불길이었으며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난 3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혁명동지, 혁명전우의 대부대로 굳게 뭉쳐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념원을 구현하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을 다그쳐왔다.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갈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에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연속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념원하시던 모든것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어 사회주의조선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변형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생하실 것이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불멸의 진리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움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할 철석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워는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신심뜨들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중앙 추모 대회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추모대회에 참석하시였다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3년이 되었다.

피눈물의 대하에서 천만군민이 당중앙을 따라 억척같이 일떠서 수평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며 주체혁명위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해 온 지난 3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민족만대의

제보로 빛내이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온 투쟁과 전진의 성스러운 나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민족대국상의 12월에 다진 맹세를 안고 어머니장군님의 불같은 열과 정으로 심장의 피를 뚫으며 절세위인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받들어온 고결한 충정과 더불어 선군태양의 력사는 천만년 빛나게 되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중앙 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추모대회장인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잠겨있었으며 기발계양대들에는 조기가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광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 온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넘쳤다.

추모대회장정면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광열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형성되어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지고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추모대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4 면 으 로 계 속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중 앙 추 모 대 회 엄 숙 히 거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추 모 대 회 에 참 석 하 시 였 다



3 면 에서 계 속

추모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전국각지에서 온 영웅들과 접견자, 공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혁명렬사유가족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 동포들, 연고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추모대회에는 주요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추모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영남동지, 최룡해동지, 박봉주동지, 황병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현철해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파범기동지, 오수용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태중수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일꾼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과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공로있는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영웅들, 접견자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중앙추모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평생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전인민단의 힘난한 조행길을 헤치시며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 결출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추모사를 하였다.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동

지가 결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장군님과 함께 투쟁하며 승리하여 온 지난 3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운명의 하늘로,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매일, 매 시각 뜨겁게 절감한 나날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력사적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이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출기차게 전진하여온 위대한 계승의 시대,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진 거창한 변혁의 시대였다고 강조하였다.

반만년민족사에 미증유의 자욕을 남기시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가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억만금

에도 비길수 없는 태양조선의 고귀한 재부로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태양의 력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자주의 불변체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결사관철하여 이 땅위에 장군님의 한평생의 뜻과 념원이 실현된 백두산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충만되어있었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듯 장엄한 포성은 강산을 뒤흔들며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추모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중앙추모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의 추모사

하늘처럼 민고 따르던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3년이 되었습니다.

민족대국상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매일, 매 시각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수령영생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지금 장군님따라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길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뜨거운 경모의 정과 위인정송의 마음을 안고 나라의 통일과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승엄한 정치문화행사들로 우리들과 추모의 정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온갖 지성을 다하여 어버이장군님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셔온 승고한 도덕의리의 3년이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온 투쟁과 전진의 3년이였습니다.

날과 같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어버이장군님을 목매여 부르던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총칭의 열기는 식을줄 몰랐으며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기둥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위대한 사상과 리념, 뜨거운 열과 정으로 이어진 어버이장군님과 이 나라 천만군민의 혈연적유대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수 없으며 여기에는 그 어떤 시간적계선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지난 3년간의 우리 조국의 현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절감한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전방으로 계속되는 시대,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펼쳐신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정치가의 성스러운 한생입니다.

일제기 해투는 룡남산마루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조선을 빛내이실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실험을 다 마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 불패성과 진리성을 완벽하게 문준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절대적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정명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시였습니다.

20세기의 년대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전우, 동지가 되시어 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시고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의밀속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백두의 빛과 기상으로 간고한 혁명의 길 을 헤치시며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 할수 없는 거창한 위업을 당대에 실현하시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간의 후식도 없이 지구들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000여리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혁명의 성지 만경대에 시원을 둔 주체100년사를 년대와 년대를 이어 태양의 력사로 빛내여 주시고 그 명맥이 새로운 주체100년대로 끊이지 이어지게 하신 바로 여기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의 위대성이 있고 비길데 없는 높이가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반제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정의의 수호자, 불세출의 선군명장의 영웅사사적행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반제군사전진, 조국수호의 최전방에 계시면서 전대미문의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을 편전편승으로 이끄셨습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사면팔방으로 달려들던 엄혹한 시기에 불패의 선군정치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의 불구름을 모르고 행복할 삶을 누릴수 있게 하신것은 백두의 천출원인이신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시였습니다.

그 이름만 불려도 사생결단의 피어린 력사가 가슴후텡게 안겨오는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판문점의 새벽길,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은 우리 장군님께서 불굴의 의지로 헤쳐가신 선군정정의 만단사연을 눈물겹게 전해주고있습니다.

자주의 가치, 선군의 보장이 있었기에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 수령인민이 핵전쟁의 참화속에서 구원되였으며 인류의 정의와 진리가 고수되였습니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세계를 휩쓴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의 팽풍에

통구멍을 내시고 사회주의종말로 막을 내릴번 하였던 지난 세기를 사회주의승리의 세기로 빛내여주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회세의 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령도의 거장의 빛나는 한생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어버이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력사적 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과제를 사소한 손색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하시였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전망성있게 사업을 설계하며 모 든것을 새롭게 창조해나가기 위대한 장군님의 비상한 예지와 뛰어난 혁신적안목,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만사를 풀어나가며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나가신 장군님의 탁월한 명도예술과 혁명적전격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근본 원천이였습니다.

20세기 문예부흥기와 사회주의의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진 지난 세기 70년대와 80년대의 력사적승리,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고 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 놓은 1990년대와 21세기 진군의 눈부신 성과들은 한번 결심하면 전쟁의 참화속에서 구원되였으며 인류의 정의와 진리가 고수되였습니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세계를 휩쓴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의 팽풍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적수령의 더없이 숭고한 한생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기쁨 떠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우리 인민군인들, 인사와 교락을 같이하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아진복자락을 날리시며 인민행렬차에 계시였습니다.

결실인 정신육체적파로를 초인간적인 정력과 의지로 이겨내시며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조국의 최북단으로부터 외진 산골마을에 이르기까지 족잡과 쫓기받으며 눈보라 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쉬임없이 이어가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자신의 한평생은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하시며 펼쳐진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업적을 이룩하시었고도 위대한 어버이의 동상을 모시고싶어하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절절한 소원만은 들어주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은 진정한 정으로 따르고 심장으로 따를 인간중의 인간이십니다.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의 최근보다 귀중한 것이 혁명동지라고 하시며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따듯이 안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한번 뜻을 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속에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과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의 창조자들, 선군시대의 영웅들과 같은 열혈의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복잡한 사회정치생활위업을 가진 사람들도 당의 품속에 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내고 높은 삶을 빛내여나가는 진실같은 사랑의 서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적생애는 그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로정에 있어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도와 헌신에 있어서, 시대와 력사발전을 추동한 그 영향력에 있어서 그 어느 위인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한생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한 재부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변불후의 선군령도로 주조국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주시대, 선군시대가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불멸의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하시고 인류사상사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성스러운 혁명활동로정에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입니다.

